

## 10 · 24언론자유수호선언의 현실적 교훈

10월입니다. 높고 푸른 하늘, 단풍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가을이지만 왠지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정신분석학자들은 ‘어두운 시대의 증후군(症候群)’이라고 진단할 것입니다.

태양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전도서1, 9)는 선현들의 말씀을 묵상하노라면 이러한 현상 또한 잠시 스쳐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희망을 지니고 창출해야 합니다.

2천여 년 전에 집필된 복음서도 답답한 시대 상황 속에서 이른바 당대 종교·사회지도자들을 다음과 같이 무섭게 꾸짖고 있습니다. “너희는 저녁때에는 ‘하늘이 붉은 것을 보니 날씨가 맑겠구나’ 하고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린 것을 보니 오늘은 날씨가 궂겠구나’ 한다. 이렇게 하늘을 보고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시대의 징조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악하고 절개 없는 이 세대가 기적을 요구하나 요나의 기적 밖에는 따로 보여줄 것이 없다.”(마태오16,2-4)

이 구절의 주제어는 시대의 징표(the sign of the time)입니다. 말하자면 시대의 표징을 잘 읽고 시대를 제대로 진단하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진단해야 바른 처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시대를 진단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언론이 시대를 식별하고 진단하고 선구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 언론은 시대를 식별하고 진단하기는커녕 많은 경우 권력의 하수인, 권력의 꼭두각시가 되었을 뿐 아니라 거짓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오히려 국민의 의식을 마비시켜왔습니다. 의식이 마비되면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다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징후는 2천년 전에도 일제강점 하에서도 자유당 독재 하에서도 그리고 5·16 군사반란 이후 유신독재, 신군부독재 체제하에서도 한가지였습니다. 그런데 2008년 올해 다시 우리는 그 불길한 징후들을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에 살벌했던 1974년 유신군부독재 체제하에서 ‘언론자유수호선언’을 통해 기자로서 시대를 식별하고 올바르게 진단하며 몸 바친 헌신적 동아투위 기자들의 삶을 새삼 기억하고자 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 그리고 그 이후에도 뜻있는 많은 언론인들의 투쟁과 헌신이 있었습니다만 동아투위 기자들의 ‘언론자유수호선언’(1974.10.24)은 한국 언론사의 획기적 전환점이며 길잡이가 되기에 이를 예범으로 기억합니다. 당시 3,40대 정의감과 정열에 찬 기자들은



함세웅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이제 6,70대의 노년기에 들어서 있습니다. 침묵하고 굴종만 한다면 모든 것이 보장되었던 이 기자들은 불의한 독재 정권에 맞서 '아니오'를 외쳤던 학생, 청년, 시민, 종교인들의 고발을 지켜보면서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도하고자 했지만 불의한 권력은 이를 총칼로 짓밟았습니다.

그러나 펜이 총보다 강하다고 했습니다. 그 후 이 기자들은 오직 펜 하나만 들고 유신독재와 맞서 싸우며 고난의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87년 6월민주항쟁을 통해 이룩한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는 바로 이분들의 헌신적 투쟁덕분이며 이를 계기로 국민의 성금으로 한겨레신문을 창간했습니다. 한겨레 기자들은 그때의 열정을 되새기며 늘 이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한겨레신문의 창간정신이 모든 언론에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동아투위 기자들은 정부의 광고탄압과 그 뒤 유신권력과 야합한 동아일보사가 동원한 폭력배들에게 강제로 쫓겨났지만 기자로서의 시대적 사명을 자각하며 세상 한복판 곳곳에서, 언론자유를 위해 최선을 다했고 출판문화계의 획기적 변화와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특히 이들 기자들은 학원, 종교, 시민, 노동계 등 각 영역에 초대되어 자유언론실천을 위한 특별강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동아투위 기자들의 버팀목이었던 송건호 선생은 명동

성당에서 민주주의의 보루가 되어야 할 언론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불의한 정권의 앞잡이와 나팔수로 전락한 한국의 언론을 개탄했습니다. 한국뿐 아닙니다. 그는 나폴레옹 치하 프랑스 언론의 비굴한 보도와 편집내용을 소개하면서 민주시민의식이 건강할 때에만 비로소 언론도 건강해 진다는 것을 역설했습니다. 나폴레옹의 행적을 보도한 1800년대의 프랑스 언론은 나폴레옹이 코르시카 섬을 떠나 그랑노블과 리옹을 지날 때 까지는 식인종, 괴물, 폭군 등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파리에 도착하자 '황제 보나파르트', '황제전하 궁에서 묵으시다' 등으로 보도했습니다. 이와 같이 언론은 변신과 아부의 귀재이기도 합니다. 우리 언론 방송이 모두 그러했습니다.

며칠 전 법원 60주년 기념식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은 비록 형식적이지만 법원의 잘못된 과거를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들은 검찰의 반성을 촉구했습니다. 우리는 올해 10·24 자유수호언론선언 34주년을 맞이하면서 무엇보다도 언론의 회개와 반성을 촉구합니다. 특히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철저한 고백을 촉구하며 더구나 사실을 왜곡 보도하는 조·중·동의 비열과 거짓을 진실과 역사의 이름으로 꾸짖고 기자들이 시대의식과 소명 속에서 새로 태어나기를 바랍니다.